

1/17/21

설교 제목: 베엘로 돌아온 야곱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35 장 16 절-29 절

(창 35:16) 그들이 베엘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창 35:17)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절관주** 창 30:24

(창 35:18)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글을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창 35: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창 35:20)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창 35:21)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창 35: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창 35:23)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이요

(창 35:24)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창 35:2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창 35:2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창 35:27) ○야곱이 기랏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창 35:28)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 세라

(창 35:29)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드디어 야곱이 베엘로 돌아갑니다.

30 년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연유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는 바람에 하는 수없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담아람으로 도망을 가야 했었습니다.

도망가던 날 밤 야곱은 이곳 벨엘에서 하룻 밤을 지새웠습니다.

땅바닥에 등을 대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워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처량한 밤을 지새고 있을때 불현듯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서 너로 하여금 무사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밧담아람으로 도망가는 처지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에 하나님 전을 짓고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30 년이라는 긴 세월을 약속하신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복 주셨고 지켜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특별히 형 에서로 하여금 동생 야곱을 용서하게 하여 아름다운 상봉을 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와의 관계까지 회복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게 되자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벨엘로 가지 않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세겜을 택하여 정착했습니다.

그렇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벨엘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이고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학살했으며 아녀자들과 그들의 재산들을 모두 몰수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가는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약속했던 벰엘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벰엘로 떠나기전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도록 영적 정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식구들이 섬기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모아 세겜에 묻고 벰엘을 향해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가나안 족속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고 무사히 벰엘로 돌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벰엘로 돌아온 야곱의 삶은 생각같이 그리 형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벰엘로 돌아오면서 야곱은 앞으로의 자신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간 길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벰엘에서의 야곱의 삶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의 죽음을 보아야 했고 장남 루우벤이 라헬의 여종이자 자신의 아내인 빌하와 동침하는 험한 꼴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떠나 보냈습니다.

이 기간은 야곱에게 언약의 아들이 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함을 받아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이 열매를 맺도록 연단을 통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히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야곱은 이 연단들을 통해 언약의 아들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벰엘로 돌아가는 시점부터 아버지 이삭이 죽는 시점까지 야곱이 겪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라헬은 벰엘로 가는 도중 에브랏 인근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에브랏은 풍성한 땅, 비옥한 땅이라는 뜻으로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창 35:16) 그들이 벰엘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창 35:17)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창 35:18)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창 35: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창 35:20)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야곱이 ‘베냐민’ 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베노니’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베냐민’은 내 오른 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편은 힘 권력 총애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베노니는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이름이지만 베냐민은 기쁨과 소망과 위로의 이름입니다.

라헬이 죽자 야곱은 베들레헴에 장사하고 묘에 비를 세워 라헬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7 년씩 14 년이나 섬겼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랑이라기보다는 무서운 집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실상 라헬에 대해 성경은 좋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기 질투가 심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가진 언니를 시기했고 그리하여 남편 야곱에게 자신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강짜를 부린 여인이었습니다.

(창 30: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을 베풀어 첫 아들을 주셨을 때 그녀는 첫 아들의 이름을 아들을 하나 더 달라고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욕심도 대단했습니다.

बाटान아람을 떠나올 때 친정의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나왔고 드라빔을 찾는 자신의 아버지 라반 앞에서 거짓말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 둘 뿐이지만 성경은 라헬과 레아를 함께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어머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어머니라니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의 어머니가 된 것은 그녀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야곱이 그녀를 사랑하여 아내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속도 우리의 자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언약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과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은 후 야곱의 장남 르우벤의 패륜 행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남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자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창 35:21)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창 35: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생모인 레아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생모 레아의 아픔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던 라헬이 죽자 르우벤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생모 레아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라헬의 여종이자 아버지의 첩인 빌하에게 갈까 염려가 되어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됩니다.

르우벤의 나이 등등 여러 면을 보아 르우벤이 빌하를 좋아해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침묵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르우벤이 이같은 패륜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결국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창 49: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창 49:4) 물의 꿈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으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르우벤은 야곱에게 있어 더 이상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 입장에서 장자 르우벤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패륜 사건을 기록한 후 야곱의 열 두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 35:23)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이요

(창 35:24)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창 35:2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창 35:2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모세는 야곱의 아들들을 출생 순서가 아니고 소생 별로 기록하여 가정 내에 갈등과 경쟁 구조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열 두 아들들은 모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에는 패륜아도 나왔고 살인자도 나왔으며 동생을 판 인신 매매범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약속의 후사로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빚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이삭만이 약속의 후사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사가 안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는 동생 야곱만이 약속의 후사가 되었고 형 에서는 약속의 후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열 두 아들 모두 약속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열 두 아들 모두를 약속의 후사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구속은 인간의 자질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35 장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유모였다가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자 리브가를 따라 브알세바로 왔고 또 리브가가 아들을 낳자 그 아들 야곱까지 길러 야곱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드보라가 죽었고 야곱이 끔찍이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으며 아버지 이삭이 죽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의 패륜 행위도 야곱에게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창 35:27) 야곱이 기랴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창 35:28) 이삭의 나이가 백 팔십 세라

(창 35:29)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은 벳엘에서 살다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기랴아르바의 마므레 곧 헤브론으로 내려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마므레는 헤브론 지역의 한 지명으로 아브라함이 이곳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고 그 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곳에 살았습니다.

이삭이 백 팔십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습니다.

죽는 것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며 통로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들에 의해 평안히 선영인 막벨라 굴에 안장 되었습니다.

창세기 36 장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형 에서를 제치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 경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서가 가나안을 떠났던 것입니다.

(창 36:6)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창 36:7)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창 36:8)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형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감으로써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던 곳에 거하게 되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언약이 흐르게 됩니다.

이삭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 에서는 자연스럽게 분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사망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자질이나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헬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형성한 야곱의 열 두 아들들 중 누구도 인간적인 자질이나 행동으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받아드리고 헤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로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